

‘광주형 일자리’ 전국에 2만6천개 만든다

산업부, 정부 업무보고

광주·나주 차세대전략산업 육성
공기청정기·가습기·제습기 등
에어가전 광주의 거점산업으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광주·전남을 비롯해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4개 지역에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광주형 일자리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 자동차·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4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광주일보 창사 66주년을 기념해 열린 ‘필하모닉스’ 공연이 지난 17일 오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다. 세계적 오케스트라인 빈 필·베를린 필 단원으로 구성된 ‘필하모닉스’의 공연을 보기위해 몰려든 관객으로 이날 1700여 객석이 꽉 채워졌다. ▶관련기사 16면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추진한다.

광주·나주는 차세대 전략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한전이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을 현재 360개에서 2020년 500개로 확대한다. 또, 공기질 악화로 수요가 급증하는 공기청정기, 가습기, 제습기 등 에어(Air)가전을 광주의 거점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주는 수소버스·수소트럭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고, 군산에는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를 신설한다. 군산조선소 폐쇄로 일감을 잃은 조선기자재 업체가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조선은 수소전기차와 자율운항선박 등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 생태계 개편을 가속해 재도약을 도모한다.

제조업의 공간인 소재·부품·장비는 연구 개발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 전통산업인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수소 경제 로드맵을 내년 1월 발표하고 내년 중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다.

통상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보험 지원 등을 확대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김산 무안군수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선언

이전 추진 일정 ‘급제동’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전 후보지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유력 이전후보지로서 민간공항 조기 이전 협약에 참여했던 무안군수가 군공항 이전 반대를 공식화하고, 무안군의회·민간단체들도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18일 무안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박막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질문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무안군민을 평생 전투기 소음에서 살도록 할 수 없다”며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 반대를 공식 선언했다. 김군수는 이어 “내년에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재 TF팀으로 구성된 군공항 대응 업무를 정식 기구화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에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협약에 참여했던 김군수가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를 공식화함으로써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협약 당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 이전과 함께 군공항을 전남으로 이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공항의 조기 이전에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무안지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추진 일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무안군의회는 군공항 이전 대응 전담부서 설치와 기관·사회단체의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안군 군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알립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제 54회 전국 마라톤
풀코스·하프코스
3월 1일 문화전당 출발
금남로 시민 걷기 대회 행사도 열려

2019년 2월 12일까지 접수

최고의 전통, 최상의 코스, 최선의 진행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내년 3월 1일 개최됩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대한민국의 자주성을 세계 만방에 알린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는 광주일보의 3·1절 마라톤은 2019년 제54회째를 맞아 호남은 물론 전국 마라토너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열리게 되며, 풀코스와 하프코스 두 종

목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독립만세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숨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태극기를 들고 행진하는 시민 걷기 대회도 열립니다. 마라톤 대회 코스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출발해 반환점인 영산강변의 송촌보를 돌아와 상무시민공원에 끝나는, 전국의 마라톤 마니아들이 애호하는 명품코스입니다.



새봄의 힘찬 기운이 약동하는 3월 1일 금남로에서 선열들의 뜻을 되새기며 태극기를 들고 함께 달립니다. 광주일보는 이번 대회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안전과 건강, 가족과 직장·동호인들 간의 우의를 다지고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을 재현하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 시 : 2019년 3월 1일(금) 08:30~
장 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 민주광장 출발
주 최 : 광주일보사, (사)아시아문화
주 관 : 광주광역시육상경기연맹
후 원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지방보훈청
종목 및 코스
-풀 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송촌보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하프코스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서창교 반환 → 상무시민공원 끝
-걷기대회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
접수마감 : 2019년 2월 12일
문 의 : 인터넷 홈페이지 (mara.kjmedia.co.kr), 062-220-0541

광주일보

경남의 해에 나를 버리고
속은 해에 나를 찾는다.
겨울 해남, 그 충만한 비움...

제23회 땅끝 해넘이해맞이 축제

일 시 | 2018. 12. 31 ~ 2019. 1. 1
장 소 | 해남 땅끝마을 일원
주요행사 | 소원띠 달집태우기,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강강술래 EDM파티, 땅끝 버스킹
떡국·고구마 나눔 등